

에테르 위치: 영원한 전쟁 캐릭터 소개 및 갈등구조

캐릭터 소개

캐릭터 별 갈등구조

캐릭터 소개
(플레이어 제외)



어둠의 여신
칼리



엘라리아



태초의 신
아멘



용족



실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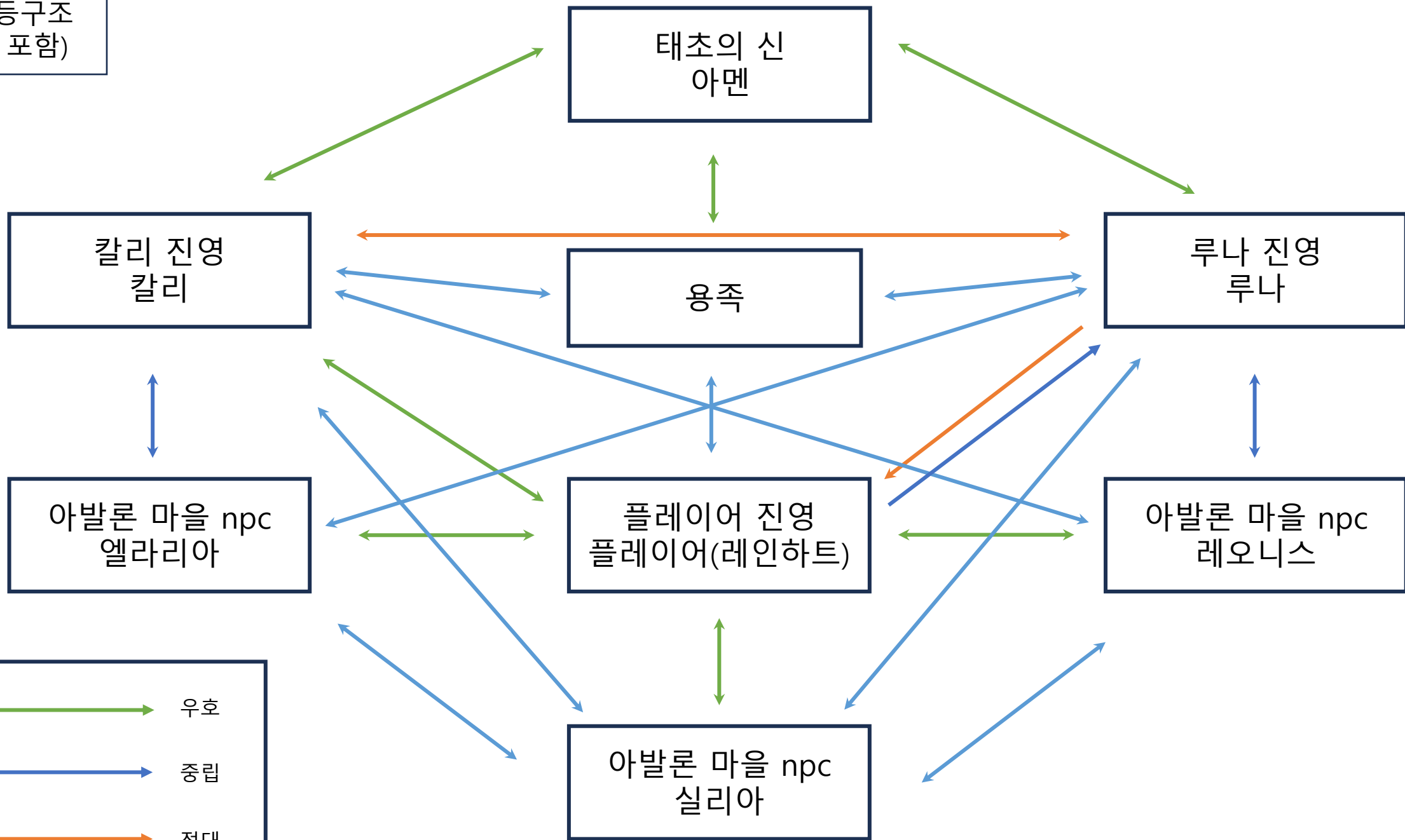


달의 여신
루나



레오니스

캐릭터별 갈등구조
(플레이어 포함)



에테르 위치: 영원한 전쟁 튜토리얼 시나리오

Chapter.1 대륙의 탄생

Chapter.2 레인의 탄생 & 칼리의 제안

Chapter.3 칼리와 루나의 갈등

Chapter.4 검객 단원의 부탁

Chapter.5 칼리의 욕심으로 인한 전쟁 발발

Chapter.6 루나의 한계

Chapter.7 대격돌

Chapter.8 에테르 위치: 영원한 전쟁의 시작

Chapter.1 대륙의 탄생

태초의 시대에서 에테르 세계는 아멘이라는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
어둠의 에테르는 더욱 어둡게 물들어가고, 달의 에테르는 더욱 빛나게 물들어간다.

모든 창조의 시초는 어둠과 달빛이 함께였고, 그로 인해 에테르가 탄생하게 되는데...
아멘은 어둠의 여신 칼리와 달의 여신 루나를 창조하여 세계를 지배하도록 시키고,
칼리와 루나 사이의 갈등은 세계에 어둠과 빛의 싸움을 불러왔다.

갈등 속 또 다른 혼돈의 세계에서 용종족이 탄생하게 된다.
이 두 여신의 갈등은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그 영향은 고대 이전의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1 우주의 그 어디속에서..

아멘: UMM.. 세계를 창조했으니 내 밑에서 세계를 관리 해줄 두 명이 필요하겠군.

어디 보자. UMM.. 어둠과 달(빛) 두명의 신을 창조하면 되겠어.

우주에서 빛이 나더니 어둠의 여신 "칼리"와 달(빛)의 여신 "루나"가 탄생하게 된다.

칼리, 루나: 아멘 님! 저희를 창조 해 주셨군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아멘: 내가 만든 세계에서 칼리는 어둠을 루나는 달(빛)을 관리해줬으면 좋겠구나!

"나는 다시 잠에 들고 싶구나..."(지친 목소리)

칼리, 루나: 알겠습니다. 세계는 저희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태초의 신인 아멘은 지친 몸을 이끌고 둘에게 기대하며 다시 잠에 들게 된다.

이후 어둠의 여신인 "칼리"는 어둠의 진영인 '어둠의 협회'를 만들어가고,

달의 여신인 "루나"는 빛의 진영인 '빛의 사원'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종족은 서로 증가하는 방향성이 달라서 갈등이 고조되게 된다.

용족: (깨어나며)으으음..

어느새 몰려온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 용 족들이 아직 잠든 새벽 연신 천둥이 내려친다.

Chapter.2 레인의 탄생 & 칼리의 제안

‘아멘’이 잠들고 난 이후 아멘 의 에테르의 기운에서 레인이 탄생하게 된다.
어둠의 여신 칼리와 달의 여신 루나를 창조하여 세계를 지배하도록 시켰습니다.
칼리는 힘과 욕망을 중시하고 루나는 평화와 조화를 중시합니다.
그런 칼리가 루나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

#2 에테르 대륙

루나 와 칼리의 웃음소리와 장난치는 소리가 들린다.

레인: (잠에서 깨며) 여긴..어디지?

칼리, 루나: (신기해 하며) 아멘 님의 에테르에서 태어나다니 너의 이름은 레인이야
레인은 꼬덕인다

칼리: 루나! 우리가 두 명이서 대륙을 지배한지도 좀 뒀 는데.. 너에게 제안을 하고싶어

루나: (궁금해 하며) 뭘대 칼리, 장난 치는 건 아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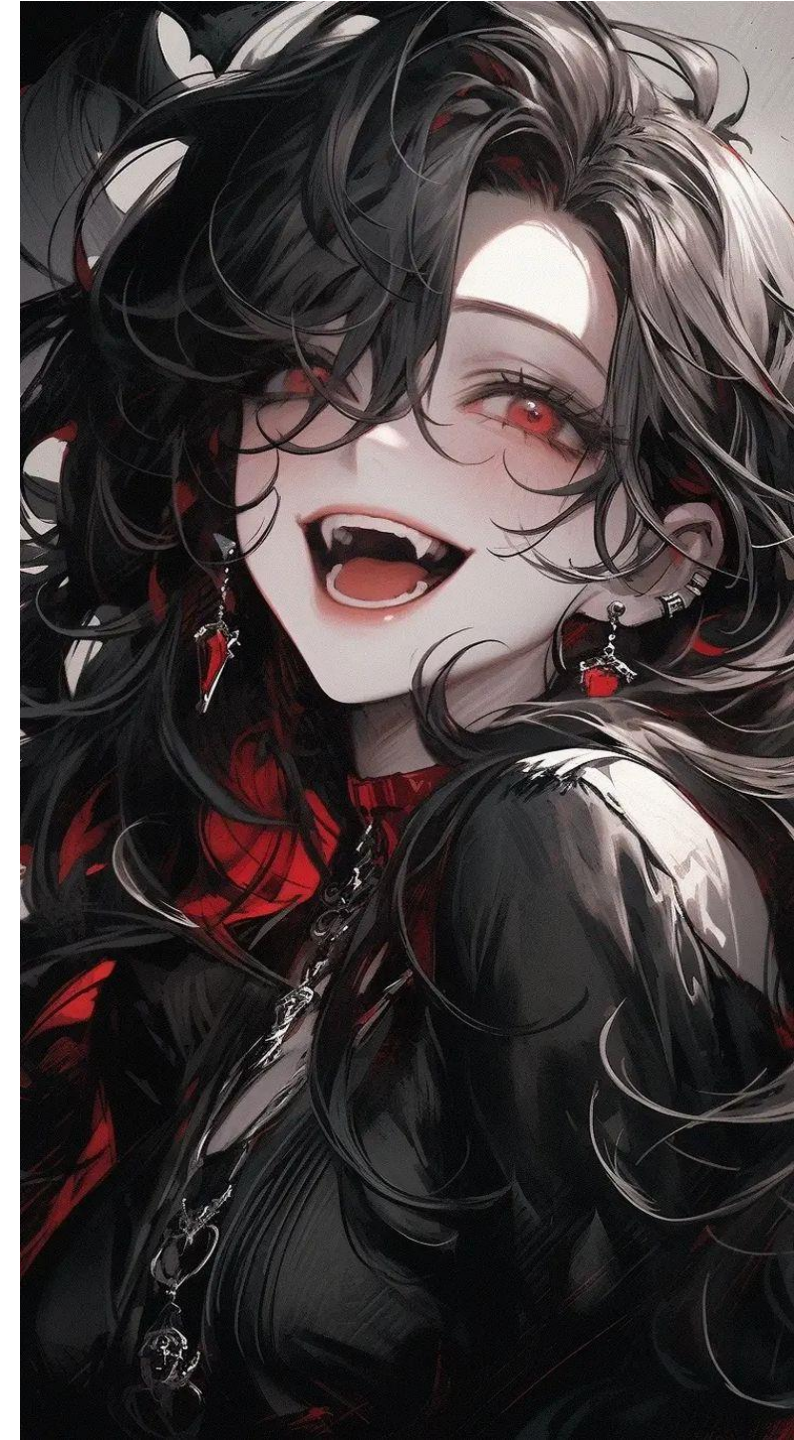
칼리: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나는 대륙에서 평화와 조화도 좋지만 지배층들을 슬슬
두고 싶어서 힘과 욕망이 강한 사람들을 뽑아서 관리를 시키는 게 어떨까 해서..
(눈치를 보며)

루나: (한숨을 쉬며) 또.. 이 이야기야..? 저번에도 얘기했자나 칼리.. 오늘은
여기 까지만 이야기 하고,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고민은 해볼게...

칼리: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다음에는 꼭 부탁할게 루나! 대답해 주는 걸로!
듣고 있던 레인도 같이 꼬덕인다.

막사로 돌아온 칼리는 자신의 생각처럼 힘있는 사람들과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 자들과 힘있는 자들을 모아 어둠의 진영을 만들게 된다.

한편 루나는 본인의 생각에 맞게 화합과 평화를 중요시 하는 사람들을 모아 자신의
달빛 여신 중 빛을 본따 빛의 진영을 만들게 되는데..



Chapter.3 칼리와 루나의 갈등

두 여신 간의 갈등은 세계에 어둠과 빛의 싸움을 불러왔습니다.
레인은 칼리와 루나의 갈등을 목격하고, 그들의 갈등 속에서 진영을 선택하게 된다.

#2-1 에테르 대륙

칼리: 생각보다 늦었는 걸, 루나 이제는 내 의견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될 거야!(기대하며)

루나: (고민을 하며)음.. 칼리 나는 너의 대답에 해주기가 힘들거같아(미안해 하며)

칼리: 어쩔... 넌 달라진게 하나도 없네.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와 똑같구나. 마치 옛날 같아.

이제 "아멘"님의 예언을 그대로 이행했지 하지만 이제 우리의 세계라 구!!(자신만만하게)

루나: 하지만.. (고민을 하며) "아멘"님은 우리에게 세계를 관리를 해 주길 부탁하셨다구!

그래서 칼리 나는 너의 의견에 대답해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는 나의 소신대로 세계를 가꾸어 나가고 싶어..

칼리: 나는 예전과 달라졌어. 세상은 강한 자들만 살아 남을 수 있어!(자신감이 넘치며)

루나: 아니 칼리...다시한번 생각해줘! 강한자들과 약한자들이 조화롭게 이루어 질수있어.

(당황하며) 레인하트는 어떻게 생각해..?(생각이 어떤 지를 물어본다)

레인(나): 1. 칼리 말에 동의해. 2. 루나 말에 동의해. (잠시 고민하며 1번을 선택)

루나: 아니 레인.. 너의 생각은 존중해..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세계를 관리하는 일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걱정하는 말투)

레인(나): 루나 내 의견을 존중해 준다면 내 선택도 존중해줘! 부탁할게!(믿어달라는 어투)

루나: (오해를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린다.)(고개를 끄덕이며) 너는 결국 칼리를 선택하는구나

칼리:(의미 심장한 미소를 지으며)레인 허름한 천막에 가서 이동해서 보급품을 가져다 주겠어?

검객 단원이 보급품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거야.

아! 참 가기전에 물약은 들고가 보급품 찾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거야

레인은 의아해 했지만 알겠다는 듯이 끄덕였다.

레인: 그럼 다녀오도록 할게!(신나게)





Chapter.4 검객 단원의 부탁

레인은 칼리로부터 검객 단원에게 보급품을 가져오는 임무를 받는다.

#3 허름한 천막(칼리의 진영)

레인이 허름한 천막으로 이동하여 검객 단원에게 도착했을때, 설명이 나온다.

검객 단원: 위대하신 칼리님이 보낸 사람이 당신이야?(무시하는 듯한 뉘앙스)

레인(나): 나를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가 보군 자네

내가 인정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지?

검객 단원: 인정?(코웃음 치며) 너따위 신입이 어떻게 인정을 바라는거지?

그렇다면 저쪽에 있는 용족 단원을 처치하고 보급품을 구해다줘!

(용족을 가리키며)

레인(나): (당황하며)'칼리가 가져오라고 하는 보급품이 용족을 쓰러트려야 하는군..'

(자신만만하며)알겠어 보급품을 구해올게!

레인이 용족 쫓병을 잡는 모습이 나오고, 검객 단원에게돌아간다.

레인: 생각보다 쉽더군! 더 어려운건 없나(어떠냐!)

검객 단원: 칼리님이 말씀하신 보급품을 찾아서 가져왔군...(생각보다 좀 치는걸?)

이제 다시 위대하신 칼리님에게 돌아가!

레인: (문득 생각을 하더니)잠깐 앞으로 오겠나? '나를 무시한 대가는 받아야 겠는걸?'

검객 단원: (아무생각없이)앞에? 자 이제 어쩔건가?

레인: (오른손으로 얼굴을 가격하며) **"남을 믿지않는 녀석따위 노력할 가치도 없다"**

가격당한 검객 단원은 정신을 못 차리고 레인은 칼리에게 돌아간다.

(카메라에서 점점 멀어지더니 화면 Fade Out)

레인이 칼리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Chapter.5 칼리의 욕심으로 인한 전쟁 발발



칼리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녀의 욕심은 세계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레인은 이에 대항하여 세계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게 됩니다. 레인은 이 과정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데..

#4 칼리의 진영 본부

칼리의 진영에 도착하며 칼리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진다(줌 IN)

칼리: (화를 내며)늦었구나 레인하트! 그래도 마침 잘 왔다.

(결심한 듯한 모습으로)이제 때가 됐다! 아멘님이 만드신 세계.

이 세계의 두명의 지도자는 필요없어,예전과 달라져야해!

나만을 위한 나의 세계를 창조할 것이다.

“가볼까? 더 없이 빛날 혼돈의 시대, 그 거대한 폭풍 속으로!”

레인은 칼리의 말에 잠시 주춤하다.

레인(나):(당황하며)칼리 이 방법이 정말 옳은게 맞을까..?

칼리:(손을 잡으며) 내 뜻에 동참하기로 한거 아니었어?(의문점을 가지며)

(화를 내며) 난 언제나 레인이 내편이길 바랬어. 이번엔 나를 도와줄 거지?

레인(나):(혼잣말로)‘루나에게 전하러 가야겠어! 이대로 가다간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말거야!’

(당차게) “나는 루나에게 말을 하러 가야겠어.. 전쟁을 막아야 돼!”

칼리:(예상을 한듯) 역시.. 내편이 되지 못하면 누구도 가질수 없어!

갈수있으면 가보라고! (화를 참지 못하고) 킬가웃! 레인을 막아!

(밖으로 나가며)

후훗.. 그럼 잘해 보라구. 내가 먼저 도착할지 레인이 먼저 도착할지..“기대할게”

칼리는 병력들을 이끌고 출발하게 된다.

레인은 눈 앞에 나타난 군단장 킬가웃을 보고 전투를 준비하게 된다.

칼리와 레인의 모습(줌OUT)에서 킬가웃이 레인을 막게되며 킬가웃과

레인의 모습(줌IN) 되면서 전투가 진행된다.

순간 레인 뒤로 거대한 두 손 도끼가 날라온다

레인: 이런.. 무식한!! 도끼를 던지다니

킬가웃: 미안하지만 위대하신 칼리님의 명이라 너를 잡아두라고 하더군

레인: 내가 가야만해 그래야 전쟁을 막을수 있어!

나를 막는다면 어쩔 수 없지

레인은 결심한듯 본인이 착용한 망토를 뜯어서 킬가웃

에게 던지고 킬가웃에게 달려가면서 허리춤에 있던

양손검을 뽑아서 킬가웃의 머리를 노렸지만 어깨에

명중했고, 갑작스러운 공격에 킬가웃은 무기를 내려놨다.

레인: ㅅ..성공 했나..?

킬가웃: 이렇게 전쟁을 막는 것에 진심이라니.. 너의 진심

방금 공격에 전해졌군.. 가라

레인: (가우뚱하며) 이렇게 보내준다고?

킬가웃: 생각이 바뀌기 전에 가는게 좋을 것이야!

그말이 들리자마자 레인은 실새 없이 뛰기 시작했고

그걸 지켜본 킬가웃이 미소를 띄기 시작했다.

킬가웃: **“자 보여봐라 소년 내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기를..”**

킬가웃이 웃는 장면을 보여준다.(줌IN)



Chapter.6 루나의 한계

루나는 칼리의 야욕을 막기 위해 힘을 참고 있지만, 그녀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네마틱으로 루나가 칼리의 야욕을 막기 위한 전투를 감상하게 됩니다.

#5 루나의 진영

척후병으로부터 칼리가 대규모 군단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되는데...

루나: (분노를 참으며) 뭐? 칼리가 군대를 이끌고 여길 오고있다고?

(한숨을 쉬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인내심이 바닥인 상태) 우리도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지? 애들 준비시켜라
그렇게 루나 진영 병사들을 막사앞에 모아놓고 말을 하게되는데..

루나: (병사들을 바라보며) 오래전 나는 태초의 신 아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때 축복이라
생각하고, 이 세계와 대륙의 평화를 위해 힘을 써달라 말씀하신걸 바탕으로 실행중이었다!

(분노를 표출하며) 하지만 어둠의 협회 수장 칼리는 아멘님의 말씀을 기어이
거역하면서까지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이세계를 통치 하려 한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게 뱀두지 않을 것이다.

(숨을 고르고..)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만들 것이다. **"우리들은 혼자가 아니다"**

병사들: (환호성을 지르며) 와아아아!!! 루나!루나!루나!

루나의 모습과 병사들이 환호성 지는 모습이 점점 멀어진다...

#6 드넓은 들판

칼리: 이번에도 늦었네 루나? 이 날을 얼마나 고대해왔는지 너는 모를거야(신나하는표정)
드디어 너를 제치고 내가 이세계를 통제할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신나!

루나: 칼리!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보는게 어때?(인내심이 폭발직전)

칼리: 다시 생각이라?(코웃음을 치며) 후훗! 두번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거같은데?

루나: (인내심이 폭발하며) 전군 진격!

칼리: 바라던 바라다! 전군 진격!

칼리 진영의 병사들과 루나 진영의 병사들이 돌격하는 소리가 웅장해지면서 분위기는 점점 고조
되어간다.

Chapter.7 대격돌

칼리와 루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어둠과 빛의 힘을 겨루는 이 대격돌은 세계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사건으로,
레인은 그 중심에 서서 세계를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6-1 드넓은 들판

뜨거운 함성과 과열된 전쟁터에 킬가웃과의 싸움에서 빠져나온 레인의 모습이 보인다.
레인: 아직이야! 포기하지마 **“다 떨어버리고!! 지금 이순간 반격의 횃불을 올려라!!!”**
칼리: (놀란 표정으로)아..아니 이렇게 빨리 온다고? 킬가웃은 대체 뭘한거야(아쉬워하며)
루나: (놀람)오셨군요. 레인! 칼리편이 아닌가요?(걱정하며)
레인: (숨을 헉헉대며)오..오해예요 루나. 저는 이전쟁을 막으려고 했던것일뿐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끝낼수 있다면 그쪽에 참여하는게
맞는거 같아요!(당차게)
루나: (기세등등하며)좋아요! 그럼 잠시 동맹을 선언하죠.
(큰 목소리로)레인이 우리편이 되었다!!!
(사기진작이된)병사들의 함성!
칼리: (아쉬워하며)결국 끝까지 나의 편이 되지 못하는군. 후훗 좋아 아쉽지만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군 잘가라 레인! **“보여라 어둠의 폭풍이여”**
칼리의 스킬 사용으로 인해 드넓은 들판이 어둠의 폭풍으로 뒤덮이기 시작하고
루나의 병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한다.
루나: 크흑.. 당하고만 있을수 없지(아파하며)
레인: (진심으로 미안해 하며)루나 그동안 오해가 쌓였을텐데 이번엔 내가 해결해볼게!
칼리! 나보고 포기를 바라는걸 포기해라!!!!
“완성된 패자의검-기사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레인이 스킬을 사용하자 어둠의 폭풍이 갈라지고 칼리의 군단들은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칼리: (아픈 소리를 내며)안돼! 이날을 얼마나 고대해왔는데... (병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지금은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다시 돌아올것이다..
???: (흥미롭다는듯이) 흠음..
칼리가 치명상을 입고 병사들의 부축을 받으면 어둠속으로 들어갔다.(줌IN)
언덕 저 한켠에서 이런 상황을 흥미롭게 쳐다보고있는 용족들(서서히 줌아웃)



Chapter.8 에테르 워치: 영원한 전쟁의 시작

#7 에테르 대륙

대격돌은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고, 에테르 대륙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온다. 루나와 레인은 에테르 대륙 중앙에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며 지내는 수도를 만들고 다양한 모험가와 평화를 지키게 되며, 그 주위에는 아발론을 비롯한 다양한 마을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나 힘을 모으며 다시 침공을 노리는 칼리와 용족들의 폭주로 끝나지 않을 영원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가일은 세계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평화가 찾아온 에테르 대륙과 아발론 마을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시네마틱이 종료되며 레인은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전설적인 인물로 남게된다. 세계는 안정 되어있지만 아직 7개의 에테르 (레인의 참격으로 인해 에테르 대륙을 창조 후 아발론을 비롯한 네볼로사(용족주둔지), 루마나리아, 크로노스, 디멘셔니스, 세라핀, 아테리아 각 대륙으로 에테르가 흩어졌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차원이 열리고 잠들어 있던 용족들이 폭주를 하기 시작했고, 아발론을 포함한 7개의 대륙에서 에테르를 전부 찾게 되면 열려있는 다른차원 과 폭주한 용족이 다시 잠들게 된다.) 를 찾아야 되는 일이 남아있고, 이후 '가일'은 아발론 마을에서부터 여정이 시작된다.

